

# 책 모으는 재미

나 운영

책이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시중의 서점에 없으면 출판사에 찾아가면 있을 법도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출판사에는 더 없을 수도 있다. 최후수단으로 저자에게 간곡하게 편지로 부탁을 하면 저자도 여분이 없어서인지 회답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보면 책이란 재수가 좋아야만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보다.

나는 중앙고보 재학시절부터 주로 관훈동에서 책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돈이 있으면 구하는 책이 없고 책이 있으면 돈이 없을 때가 많았다. 어쩌다가 늘 찾던 책이 발견되었는데, 마침 돈이 없을 때에는 비상수단을 쓰기도 했다. 그 책을 두꺼운 책과 책 사이에 밀어넣어 아무도 쉽게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돈이 마련될 때까지 매일 한번씩 문안을 간다. 그러다가 드디어 돈이 생기면 달려가서 사오는데, 이 수법은 나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이런 수단으로 모은 책이 상당히 된다. 책방주인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수단방법을 가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할 수 없지 않은가...

어떤 때에는 꼭 사고 싶은 책을 만지작만지작하다가 '내일 와서 사야지'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서점을 나섰다가 즉시 되돌아갔는데 벌써 그 책을 다른 사람이 사가버린 것이 아닌가... 아마 그 사람도 그 책이 필요했던 모양이니 물러달라고 조를 수도 없고-- '언젠가 구할 수 있겠지'하고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실의에 빠져 책방을 나왔는데, 그때의 그 책을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구하지 못한 것이 더러 있으니, 책과의 만남도 인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요즘은 복사기가 있어 싼값으로 손쉽게 필요한 책을 구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야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요즘은 그럴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헌책방 주인이 잘 몰라서 귀한 책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런 때에는 부랴부랴 값을 치르고 떨어는 마음으로 도망치다시피 돌아오곤 했다. 혹시 뒤늦게 그 책의 가치를 알고 돈을 더 내라고 하거나 앓을까 염려되어 마치 죄라도 지은 것 같은 심정이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친구와 함께 헌책방에 들어가서 친구 눈에는 띄지 않는데 나만 좋은 책을 재빨리 발견해서 사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으니, 어디에 음악서적이 꽂혀 있는지를 먼저 육감으로 알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시 운이 따라야 하나보다.

책을 모으는 재미란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밥은 굶어도 책은 사야 하고, 있는 돈을 툭툭 털어서 책방 주인에게 주고 나면 버스 탈 돈이 없어 십리길을 걸어서 돌아오더라도 책만은 사야 하니까 말이다.

나는 책을 구하기 위해 일본·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안가본 데가 없다. 책방을 헤매다 길을 잃은 일도 있었다. 하루 한끼만 먹고 하루종일 책방을 뒤져 산 책을 양손에 들고 여관으로 돌아오면 발바닥이 부르터 잘 걸을 수도 없고 -- 책이란 왜 그렇게도 무거운지-- 팔이 떨어져나갈 것만 같은데 그래도 마냥 기분이 좋기만 하니 이것도 팔자인가...

만약에 책방에 책이 없을 때에는 최후수단으로 도서관에 가서 복사를 부탁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책 한권을 몽땅 복사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복사해와야 한다. 그래도 나는 조금도 불평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라도 귀중한 자료를 내 손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외국의 새 책을 사는 경우, 나는 한군데에 가서 무턱대고 사질 않는다. 같은 책이라도 책방에 따라서 값이 다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환율이 떨어졌을 때에 수입한 책과 환율이 올랐을 때에 수입한 책은 값이 다르기 때문에, 두서너 곳의 책값을 비교해 보아 싼 것을 사고 그 대신 다른 책을 더 사야 하니까 말이다.

나는 번역도서조차도 없는 때에 『음악이론총서』(전 10권)를 세광음악출판사에서 출판했는데, 판을 거듭할 때마다

수정·증보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책이란 본래 초판·재판·3판··· 등등을 모조리 사 모아야 하고 특히 번역서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서를 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사람이 번역한 것을 -- 원본도 없이 -- 중역한 것이 많은데, 그런 책은 믿을 수가 없다. 불안해서 말이다. 그래서 나는 번역서일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품고 읽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원서를 구해서 원서와 대조해봐야만 안심이 된다.

'책을 모으는 재미'보다 더한 것은 '책을 모으는 괴로움'이 아닐까? 그러나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알지 않고 열심히 모으는 데서 재미를 맛보게 되는 것이니, 이 또한 팔자인가 보다.

책이란 전집 한 질을 월부로 사는 것보다는 아무리 작은 책이라도 하 권 한 권 사모으는 것이 더 재미가 있다. 더욱이 책이란 남의 것을 빌려다 읽는 법이 아니다. 언제나 내 책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아무때나 다시 읽을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편리하다. '삼치(三痴)'란 말도 있듯이, 책이란 빌리는 것도 아니요, 빌려주는 것도 아니요, 일단 빌렸던 것을 되돌려주는 법도 아니라고 하지 않는가? 정 살 수 없으면 외국에 있는 내 제자들에게 도서관에 가서라도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통사정을 하기도 한다.

책에 묻혀서 사는 것, 헌 책의 곰팡이 냄새를 맡으면서 책을 깨끗이 읽고 깨끗이 보관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금은보석을 자손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책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뜻있는 일인가.

책을 사 모으는 데 얽힌 애환을 되새기면서 요즈음 나는 '운경음악도서관'의 개관을 서두르고 있다. 내가 모은 연구자료는 이제부터는 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학위논문을 쓰는 사람들에게 내놓으려는 것이다.

〈월간「책과 인생」'92 창간 1호〉